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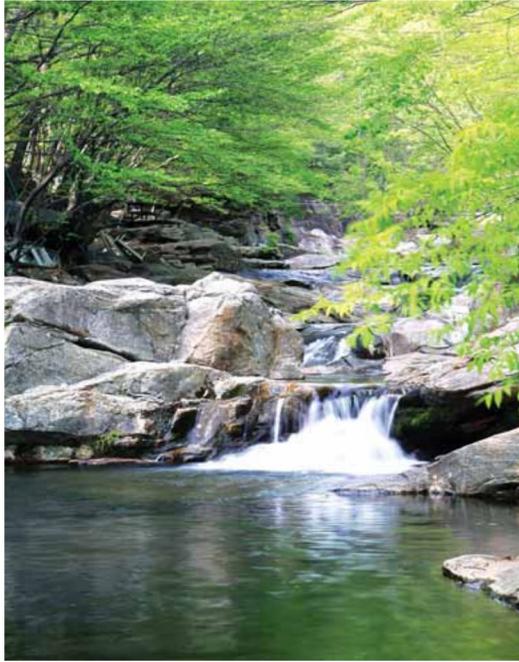
맑은 물·원시림 '백운산 4대 계곡' 피서지 인기

休~좋다 夏~시원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광양 백운산 '4대 계곡'에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백운산에는 금천·어치·동곡·성불 등 4곳의 계곡이 있어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백운산 4대 계곡은 10km에 걸쳐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다. 계곡 주변에 높이 30~40m에 달하는 풍성한 숲이 우거져 있어 전혜의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태풍 북상시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암괴석 사이 평평한 바위 많아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격

성불계곡 봉강면의 백운산 봉우리인 형제봉과 도솔봉 사이에서 발원한 성불계곡은 조령리의 성불교에서 성불사 위쪽까지 2km가량 펼쳐져 있다. 기암괴석 사이로 평평한 바위가 많아 가족 단위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원시림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계곡상류에는 고려시대 불교문화 중심지로 전해오는 '성불사'가 자리해 불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또 새재를 잇는 등산로와 형제봉과 도솔봉 사이를 통과하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산을 찾기도 편하다. 주변 관광지로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큰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강희보·강희열 형제 의병장의 위패를 모신 사당 쌍의사(雙義社)와 수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백운 저수지가 있다. 계곡 근처 산장에서는 흑염소 구이, 닭불고기, 닭백숙 등 자연 건강식을 맛 볼 수 있다.



한낮에도 이슬 맺힐 만큼 시원...천마의 전설 가진 구시폭포도

어치계곡 진상면 어치리에 있는 어치계곡은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이 유명하다. '한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시원하다'는 오로대, 천마의 전설을 가진 구시폭포가 있다. 어치계곡은 길이가 7km에 이르며 계곡 주변에 각종 팬션리 자리 잡고 있다. 해마다 피서철이나 주말에는 물놀이 관광객이 줄을 잇고, 이른 봄에는 고로쇠 약수를 마시러 계곡을 찾는 이가 많다. 특히 섬진강 매화마을과 약 10분 거리에 있다. 백운산 남쪽 주봉인 억불봉과 백운산 정상까지의 구간은 도토리나무 군락지이며 숲속 전체의 키가 30~40m 수목으로 뒤덮여 추위를 느낄 정도로 시원하다. 어치계곡은 사계절 내내 독특한 흥미와 추억 거리를 만들어 주며, 지역 주민들이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10km 달하는 계곡과 울창한 수림 조화...다양한 식물 볼거리

동곡계곡 옥룡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계곡(10km)은 백운산과 한재, 파리봉 참샘이재, 도솔봉 남쪽 사면을 따라 흐르며 백운산 계곡 중 가장 크고 길다. 계곡 주변을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민박집도 많다. 백운산 정상과 파리봉 사이의 한재에서 발원한 동곡 계곡은 광양읍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든다. 학사대, 용소, 선유대 등의 비경(秘景)이 있고, 가을철이면 울긋불긋한 단풍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울창한 수림으로 우거진 백운산은 한라산 다음으로 식물분포가 다양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백운산에서 서남 자생하는 백운란, 백운 쇠물푸레, 백운 기름나무, 나도슴마, 털노박덩굴 등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된 곳...섬진강 절경과 어우러진 풍광 탄성

금천계곡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에 위치한 금천계곡은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짜다는 옥녀봉에서 발원해 백운산 뒤편 능선을 따라 2~3km의 길이로 펼쳐져 있다. 전남의 그 어느 지역보다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며, 인근의 섬진강의 절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섬진강의 정취와 함께 계곡을 따라 곳곳에서 참깨탕, 매운탕, 재첩회 및 재첩국, 닭불고기, 닭백숙, 염소구이 등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또 금천리 마을 입구에 있는 다압초등학교 분교는 현재 '메아리 휴양소'로 단장돼 운영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조선소 인수전 2개 업체 의향서 접수

조선업 불황으로 매물로 나온 광양 조선소 인수전에 국내 전략적 투자자(SI) 2곳이 도전장을 내밀어 매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오리엔트 조선이 보유한 광양조선소 인수희망서(LOI)를 마감한 결과, 국내 조선업체 2곳이 참여했다. 그동안 그리스와 중국 등 해외 조선업체들이 잠재 인수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접수 마감까지 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양조선소는 추가 접수를 받아 이달 말 본 입찰 등을 거쳐 연내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위치한 광양조선소는 물 위에 서 선박을 건조하는 '플로팅(Floating) 도크'와 '육상 도크'로 구성돼 있다. 오리엔트 조선은 기본적으로 두 도크를 쪼개지 않고 매각할 방침이나 매각 대금이 클 경우 두 곳을 쪼개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오리엔트 조선은 조선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아 2012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같은 해 7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들였다. 오리엔트 조선은 광양조선소 건립에 상당한 자금을 쏟았지만 업황 불황 여파로 수주실적이 부진해지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광양조선소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제철 도배·농기계수리 봉사단 신설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가 사내봉사단의 전문화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도배 전문 봉사단과 농기계수리 봉사단(사진)을 신설, 봉사단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지난 2003년부터 나눔과 봉사의 뜻을 모아 스스로 구성한 자생 봉사단은 '프렌즈 봉사단'과 '학습봉사단'이 있다. '프렌즈 봉사단'은 다문화 가정의 든든한 이웃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학습봉사단'은 지역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영어·수학 학습을 돕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프렌즈 봉사단과 학습봉사단, 도배전문 봉사단, 농기계수리 봉사단을 광양제철을 대표하는 실속형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백승관 소장은 "이런 봉사단 정비는 봉사의 질적 향상을 물론 이웃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 내실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웃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세 얼 굴

“경영 행정”으로 시민 행복도시 건설

임 영 주 광양부시장



“동료 공직자들과 적극적인 ‘경영 행정’을 펼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도시, 시민 행복도시 광양을 건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광양시 임영주(55) 신임 부시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장발전 경쟁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도시 발전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광양에서 근무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 창의적이고 친절한 조직을 통해 시민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 출신인 임 부시장은 여수고와 건국대 농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5년 제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전남도 농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 담양부군수, 전남도 농림식품국장 등을 역임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Advertisement for 'Asset Evaluation Specialist' services, including text about evaluation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onam Co., Ltd.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